

탕자여, 돌아오라

성경 누가복음 15:11-24

신 67 쉼대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루 되세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찬양

1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은혜의 찬양 183장)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1



2 거룩하게 하소서(찬송가 422장)

- 1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에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
- 2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해
- 3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바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해

2



말씀 읽기 누가복음 15:11-24

-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
 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
 을 낭비하더니
-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 22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본문 배경

예수님이 모인 무리에게 한 이야기를 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을 지금 달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아버지께 유산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불의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가족 간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은 작은아들은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방탕한 생활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진 재산을 모두 사용해 버립니다. 심지어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그는 매우 가난해집니다. 작은아들은 다른 사람의 집에 빌붙어 살게 되었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고자 했으나 그것조차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작은아들은 자신이 누리며 살았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품꾼들조차도 배불리 먹었는데, 아버지를 떠난 자신은 이제 굶어서 죽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작은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닌 품꾼 중 하나로 자신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작은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들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작은아들을 향해 달려와서 그를 안아 줍니다. 아들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지만,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그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 줍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떠난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죄를 짓고 돌아온 아들을 꾸짖고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말씀 암송

말씀 관찰

1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의 인생은 어땠나요?(13-16절)

답 재산을 모두 탕진하여 궁핍해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 구하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해설 둘째 아들은 결국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삽니다. 그것이 자유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곧 재산을 탕진했고 흉년을 맞이하여 극심한 빈곤에 빠집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줄이 잘린 연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를 자유롭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유를 꿈꾸는 것은 스스로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2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했나요?(20-24절)

답 달려가 아들을 맞이하고, 아들로서의 모든 권한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해설 아버지는 애타는 마음으로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종으로 삼아 달라고 간청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들의 낯고 허름한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들로서의 신분을 상징하는 가락지를 손에 끼웁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엽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24절). 하나님은 지금도 집을 떠난 자녀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씀 적용

1 하나님을 떠난 삶을 상상해 본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우리 주변에 집을 떠난 탕자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12-1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복음 15장 10절

작곡 조미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십오장 십절 아멘 아! 멘!



가정예배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우리 가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